



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

김미선
(행정 4)

76년 강원도 횡성출생
95년 강원여고 졸업
우리학교 행정학과 입학
민속탈춤반 입탈, 동연 기획부장
97년 민속탈춤반 두령
98년 14대 총여학생회 회장 입후보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

이려화
(회계 4)

77년 경북 왜관 출생
95년 점촌고등학교 졸업
우리학교 회계학과 입학
96년 홈스텝 중무
97년 13대 총여학생회 사무국장
98년 14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입후보

● 미션이와 려화가 ● 2500여학우에게 드리는 글

'3월 선거라는 시기가
짧은 8개월 동안 헤쳐나가야 할
많은 벽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짧지만, 그래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학신이 드는 것은, 자신이 생기는 것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미 멀어져 버림을 실감한
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빈 공간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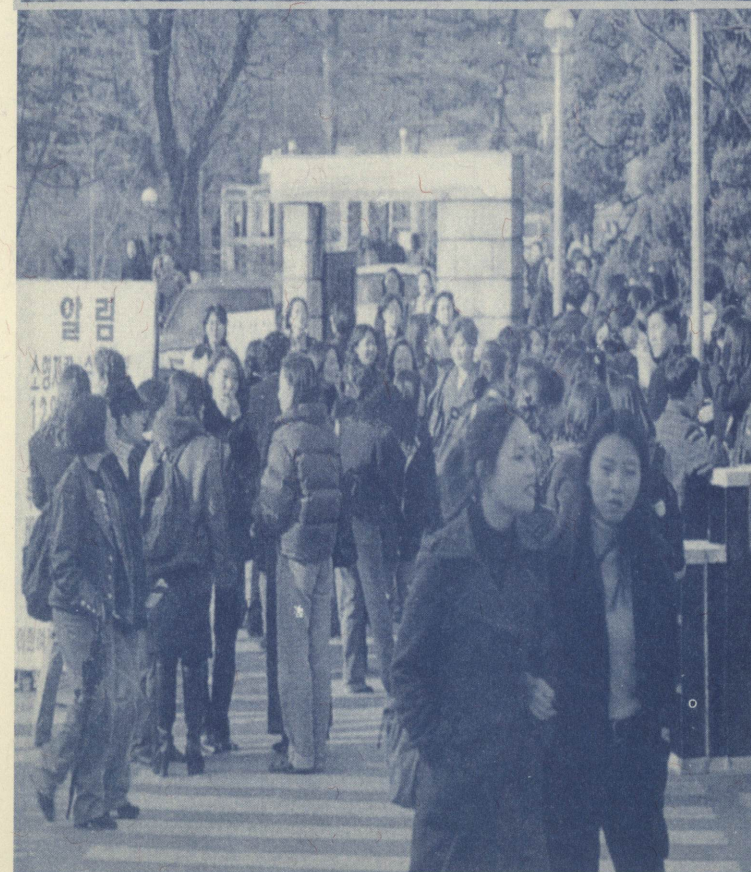
각자 선 자리에서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빈 공간을
채우고 싶고, 채울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2500여 시대 여학우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가 되겠습니다.

이 리플렛은 1도 올셋인쇄하여
총 2000부 제작되었으며 1부당 100원입니다.

시작 B-14 7(늘)

멀리서 / 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14대 총여학생회 후보

김미선 . 이려화

선거운동본부

멀리서 / 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진 실

"넌 대체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어느 유행가의 유풀림이 떠오른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읽고, 보고, 듣다보면
자연히 숨겨진 우리가 찾아지는데

독 주

세상에 맡겨진 나의 질주의 흔적은
어느새 산성에 부식된 자아.

이 제

나의 삶을 낯설게 하여
자세히 들여다 보는
나의 숨결이 뻗어지는 바로 지금, 여기
너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미 래

작은 몸짓들을 깊이있게 인식하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멀리서 / 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14대 중여학생회 후보 김미선 이려한와 함께 하는 사람들

1

● 열악한 민중시대인의 취업환경

- 취업정보실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 더욱 더 소외되는 여학생 취업
취업정보실의 여학생 전담 부서 마련
자기 능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 사회로 미래로 열린대학

- 동대문 구민,
교수, 교직원, 학생을 위한
학내 보육시설 마련



3

● 강의실에서도 기죽는 우리 여학생들

- 교수 공개채용시 여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교수님과 여학우들과의 간담회 추진



staff

사무장 : 국미애(경영 94) 비 서 : 정현희(환공 96)
정 책 : 이은희(행정 95) 선 전 : 이명진(경영학부 95)
조 직 : 진미선(조경 95) 문 선 : 조지희(환공 96)

시대 여학우의 든든한 **백**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